

코로나로 일상이 달라진 건 회사도, 가족도 모두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언제나 '맑음'이 아닐지라도

힘차게 '오늘'을 보내고

'내일'을 맞이하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 우리는 오늘도

## 안녕 합니다



- 01 CEO 메시지
- 03 현재를 알다 : 사진으로 보는 뉴스
- 05 미래를 엿보다 : 스마트 조선소
- 10 과거로 가다 : 그때 그 시절
- 15 부서 탐방 : 선박시운전
- 19 야드 탐방 : 슬기로운 야드 생활

- 23 D루마블
- 25 경영 트렌드 : ESG
- 28 드라이브 스루
- 31 혼자 놀기, 이렇게
- 33 가족 편지
- 35 우리동네 지도



## 친애하는 임직원, 그리고 가족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찬 기운에 겨울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격동의 2021년을 채 한 달도 남겨 두지 않은 12월 초,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WTIV) 1척 수주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올해 목표(77억 달러)를 훨씬 넘긴 107.7억 달러를 수주하였습니다. 지난 3월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물량 급감에 따른 불확실한 상황을 단기간에 끝내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켰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내년 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 회사가 생각하는 단기 목표를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간략하게나마 공유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100억 달러 이상 수주 달성은 회사나 임직원, 가족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조선업 불황과 회사의 경영 위기, 코로나19 등의 기나긴 역경을 딛고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100억 달러 이상 수주**는 2014년 이후 7년만의 일입니다.

둘째, **2024년까지의 일감을 확보**함으로써 물량 부족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는 일량 부족으로 임직원들이 예년보다 쉬는 날이 많았고 수입도 줄어들어 모두들 불안과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일거리에 대한 불안은 내려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린 DSME 가족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출 급감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애써주신 임직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선종을 수주**함으로써 수익성 확보와 균형 잡힌 사업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주한 60척 중 LNG선 15척을 포함한 선박 55척, 대형 해양 제품 2기, 잠수함 1척,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신규사업인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 2기가 대표적입니다.

넷째, **친환경 시장과 미래를 선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주한 선박 중 친환경 선박인 이중연료 추진 선박이 80% 가까이 차지하였습니다. 최근 환경규제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이로 오염물질 배출 선박은 운항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 투자회사들도 친환경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환경은 경영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 앞길이 장밋빛으로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강재를 비롯한 기자재 단가 급등 및 매출 감소로 회사는 올해 3분기까지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강재 단가 상승 및 공급 부족과 자재 물류 대란으로 인한 납기 지연, 협력사 불안정 등으로 실적 호전이 쉽지 않습니다.

덧붙여 내년에는 회사를 운영할 현금(유동성)이 부족하고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등 재무적 위기도 예상됩니다. 이는 내년 생산량은 올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해 건조 자금이 급증하는데, 내년에 받을 인도 대금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내년 인도 선박 대비 건조 선박 1.6배) 그리고 내년에 건조하는 선박은 2020년 코로나19 및 극심한 조선 불황으로 선가가 좋지 않을 때 수주한 게 대부분이고, 수주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 손실 폭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물량 급감이라는 위기를 우리 힘으로 돌파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닥친 상황을 반전시켜 2022년에는 정상화된 활기찬 조선소를 만들고, 2023년에는 흑자 달성’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수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 왔듯이 앞으로의 역경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회사의 경영 위기로 임직원들의 가정 살림살이가 빠듯한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사장으로서는 안타깝고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묵묵히 불편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임직원과 가족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한 회사와 가정의 모습이 좋아지는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저를 포함해 경영진 모두가 먼저 한발 더 뛰겠습니다. DSME 모든 가족들도 출근하는 배우자, 혹은 자녀, 부모님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임직원과 가족 여러분은 항상 건강하게, 웃으면서 생활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성근 드림




# 2021년 DSME 뉴스

## 100억 달러 수주 돌파

회사가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sup>WTIV 1)</sup> 1척을 12월 2일 계약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수주 금액은 107.7억 달러로, 목표 77억 달러 대비 약 140%를 달성했습니다. 수주 척수는 모두 60척으로, 컨테이너선 20척, LNG선 15척, 초대형원유운반선 11척, 초대형 LPG선 9척, WTIV 2척, 잠수함 1척, 해양플랜트 2기 등을 수주했습니다.

1)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화상으로 미주, 유럽, 아시아지역 선주 3개사와 수주계약을 하고 있는 이성근 사장

## 주요 수주 실적

### 올해 수주 선박 중 80%(45척)가 이중연료 추진 선박으로 친환경 선박 시장 선도

1월 LPG선 2척(노르웨이 아반스가스사·9만1,000m³), 6월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독일 하팍로이드사·2만4,000TEU급) 등을 수주하면서 회사는 거의 전 선종에 걸쳐 이중연료 추진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 함정 명가 재입증

장보고-III 배치2 사업(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는 국가 사업)의 2번함을 9,857억 원에 9월에 계약했습니다. 당사는 한국해군 역사상 가장 많은 잠수함(22척)을 수주했고, 국내 유일 해외 잠수함 수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7년 만에 조(兆) 단위 대형 해양설비 수주

브라질 최대 에너지 기업(페트로브라스)으로부터 FPSO를 6월에 수주했으며, 회사 계약 금액은 1조 948억 원입니다.



### WTIV로 해상 풍력 시장 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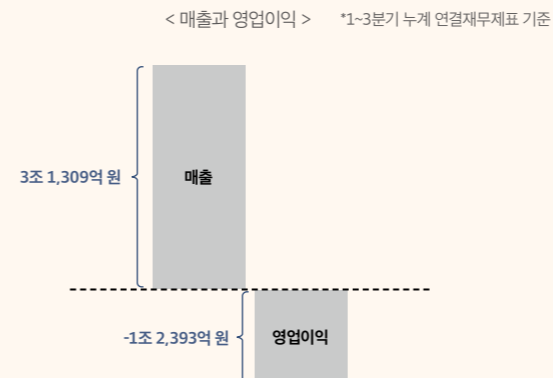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 신규사업인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을 5월과 12월 각각 1척씩 수주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 건설을 계획하는 등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 경영실적

회사가 경영실적을 11월 15일 공시했습니다. 1~3분기 누계 매출액은 3조 1,309억 원, 영업손실은 1조 2,393억 원입니다. 이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줄었고, 영업이익은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배경에는 '19년~'20년 수주 부진으로 인한 건조 척수 감소 영향을 받았습니다. 매출은 건조 진행률에 따라 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은 강재 등 재료비가 증가하고 일량 감소로 고정비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 생산

올해는 잠수함 구조함, LNG-FSU<sup>5)</sup>, 이중연료 셔틀탱커<sup>6)</sup> 등 신선종 여러 척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첫 국산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을 8월에,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중 마지막 함을 현지에서 3월에 인도했습니다.

그 밖에도 DX 전략(5쪽 참조)과 ESG 경영(25쪽 참조) 등 미래를 위한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5) LNG-FSU : 해상에서 LNG를 선적하고 하역하는 해상 터미널
- 6) 셔틀탱커 : 바다 위 해양플랜트 설비에서 생산된 원유를 받아 육상 저장기지로 운송하는 선박

### 친환경 이중연료 셔틀탱커 진수



## 기술

회사가 대외 기술상을 받으며 우수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재액화 기술인 NRS<sup>2)</sup>로 IR52 장영실상<sup>3)</sup>을(12월 6일), '2만 4,000TEU급 스마트 컨테이너선'으로 대한민국기술대상<sup>4)</sup>(11월 17일)을 받았습니다.

### 2021 대한민국기술대상 수상 모습



- 2) 질소를 냉매로 활용해 LNG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된 가스를 재액화해 다시 저장하는 기술(Nitrogen Refrigerant System). 현재 야드에서 건조 중인 LNG-FSU에 적용.
- 3) 산업기술 혁신에 앞장선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 4) 성과가 뛰어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술을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 도산안창호함 인도식



DSME 잠수함 역사  
유튜브 동영상

# DSME는 스마트 조선소

코로나19로 세계가 멈춘 듯 했지만, DSME는 그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비대면, 자동화 기술을 발전시켜 첨단 조선소로 변신 중인 DSME를 소개합니다.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는 DX전략\* 추진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DX 전략 : Digital Transformation의 줄임말. 첨단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조선소로 전환하는 전략.

## 디지털 생산센터

1

사진1

## 450만m<sup>2</sup> (150만평) 야드를 한눈에

집안 살림도 다 파악하기 힘든데, 이 거대한 조선소가 돌아가는 주요 현황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면? 5월에 문을 연 '디지털 생산센터'에 가면 가능합니다.(사진1)

이곳에 입장하면 8분할 큰 화면에 3D로 구현된 야드가 펼쳐집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골리앗 크레인과 500여개의 블록들이 바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하는 블록 위에는 색깔이 입혀져 일정대로 진행되는지 바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시스템(DPⓄP)으로 어느 사무실에서나 컴퓨터를 켜면 확인 가능합니다.(DPⓄP사진). 또한, 블록 위치는 현장에서 스마트 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진2)



DPⓄP



사진2

### 스마트 시운전 센터(옥포)

연료 소모량을 보면 바람, 해류, 해수 온도에 따라 달라지네요. 현재 시운전 중인 배는 어떤지 볼까요?

### DS4 센터(시흥)

인도한 선박이 어떻게 운항하는지 분석 데이터를 보냅니다.

시운전 분석 결과는 연료유 품질에 따라 다르군요.



사진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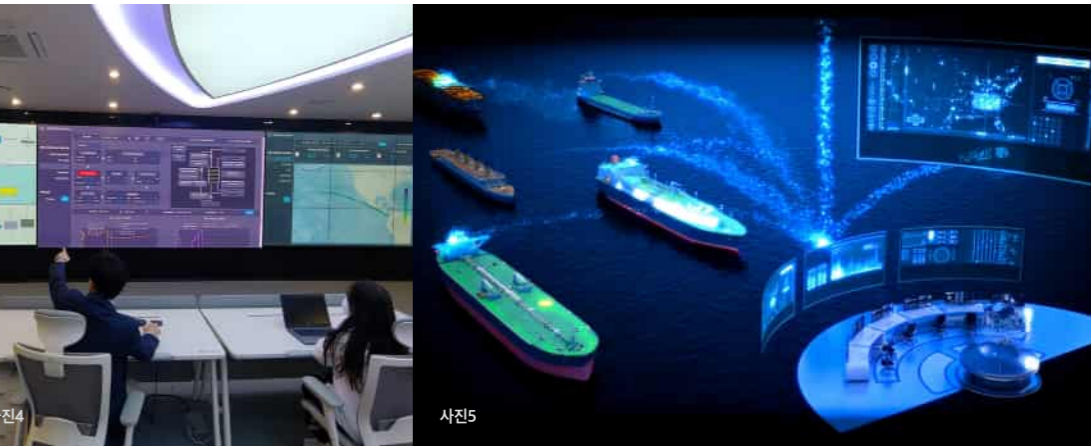


사진4

사진5

## 경기도 시흥 - 거제 옥포 - 대한해협 연결

이 곳에서는 대한해협에서 시운전\* 중인 선박의 운항 상황, 연료 소모량 등도 볼 수 있습니다.(사진3) 시흥의 'DS4 육상관제센터'(사진4)와 연계해 데이터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회사가 건조한 스마트십 기술(사진5)로 인도 선박의 운항 데이터를 수집해 장비 운용과 신제품 개발에 도움을 줍니다.

\*운항 시 선박 성능을 검사하는 공정



## 힐스 센터와 가상 안전 체험실

시외 공장 담당자

장비 보이나요?

품질요원

네, 그런데 표시 부분  
자재 설치 안되어 있네요?

도면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던데요.  
화면에 도면 띄울게요.

사진(6)

# 3

## 증강현실 기술로 검사와 교육까지

현장이나 사외, 심지어 중국 공장에서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화상 연결해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사진6) 화면에 그림을 그려 설명하고, 관련 문서도 보여줘 현장에 가지 않고도 장비 검사가 가능합니다.

가상현실 체험장비가 마련된 힐스(HILS)센터에서는 고글을 끼고 시스템에 접속하면 실제 선박을 건듯이 둘러볼 수 있고, 장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눈앞에 생생히 펼쳐집니다(사진7). 잠수함에도 적용 중이며,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선원 교육과 도장 VR 교육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가상 안전체험도 가능합니다. 가상공간에서 추락이나 질식, 폭발 사고 현장을 생생히 체험해봄으로써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진7

사진9

## 각 부서 사무실



사진8

11번공기 압축 설비의  
압력이 낮아지는데요?

이런, 12번 장비에는  
이상이 있다고 뜬니다

A지역 에어 사용량이 많나 봅니다  
#4 장비를 추가 가동하겠습니다.

B사원에게 현장에 가서 정비하라고 하겠습니다.

N벽안에 있는 LNG선 화물창 습도가 높네요?  
원격으로 온습도 조절장비를 켜야겠습니다.

# 4

## 사무실에서 선박 온·습도와 야드 85곳 공기압축기 조절

요즘 스마트폰으로 집의 보일러나 전등을 켜다 켜거나 자동차 시동을 켜듯, 회사에서도 원격으로 주요 장비들을 조정합니다.

LNG선에 LNG를 싣는 화물창을 구성하는 자재는 온·습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를 위해 예전에는 아파트 수 층 높이를 오르락 내리락하며 온·습도를 체크한 후 조절 장비를 가동했습니다. 이제는 사무실에 앉아서 온습도를 확인하고 원격으로 장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사진8) 회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해, 인공지능이 알아서 최적의 온습도를 조절하는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야드 곳곳에 있는 공기압축기 설비 85곳, 가스설비 20여 곳 등도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사진9)

## 생산 현장



# 5

### 인공지능이 철판 구부리고, 불량 잡고, 계획 세우고

생산 현장에는 인공지능로봇이 투입돼 사람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두꺼운 철판에 열을 가해 정확한 곡을 만드는 '열가공 로봇'은 강화학습형 인공지능을 결합해 쓰면 쓸수록 똑똑해집니다.(사진1)

철판에 생긴 작은 결함을 잡아내는 일도 인공지능 기기가 톡톡히 해냅니다. '비전(Vision)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덕분이죠. 이제 24시간 눈이 빠지도록 철판에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를 지켜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인공지능 기기에서 알람이 뜨면 달려가 확인하면 된답니다.(사진2)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최적의 계획 수립을 돕기도 합니다.(사진3)

# 6

### 어려운 용접은 로봇이 대신해

인디, 캐디 등의 자동용접 로봇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작업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깎아지르는 듯한 선박 옆면을 스파이더맨이 기어오르듯 자동 용접해주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회사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무레일 용접장치입니다.(사진4) 집 앞에 펼쳐진 조선소에 이렇게 첨단 기술이 도입 되었을 줄이야! 10년 뒤 회사 모습을 떠올리면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 아, 그때 그 시절

코로나로 여행 떠나기도 쉽지 않은 요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추억 여행을 떠나보아요. 언제나 날씨가 '맑음'일 순 없듯이 흐리거나 비가 내린 적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DSME는 성장해 왔습니다.



▲1993년

이 사진에서 저를 찾을 수 있겠어요? 딸들이 사진 보자마자 27살 때의 저를 "완전 아빠네!"라며 찾더군요. 고등학교 졸업 전에 취업해서 인생의 대부분을 회사와 함께 했네요. 회사는 어려운 날과 좋은 날이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모두가 이겨내며 왔습니다. 회사 덕분에 내 가족도 먹여 살리고, 저에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최고로 소중한 직장입니다.

### 근속 40년 사우가 전하는 그 시절



이명용 기감 (선박의장1부)



1990년 | 68회 어린이날 대잔치 기념행사

어린이날 행사를 크게 했죠. 제가 패러글라이딩 동호회라 옥녀봉에서부터 잔디구장까지 쪽 타고 내려오는 이벤트를 했어요. 비록 우리 애는 못봤지만 직원 자녀들을 위해 열었습니다. 우리 딸들, 미안해~



1993년 | 현장개선활동

현장 개선활동을 그 당시에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땐 프린트가 됩니까. 다 손으로 적고 붙여서 저렇게 보고했답니다.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1993년 | 옥포 시가지

옥포를 한창 매립할 때입니다. 카페 골목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7080 감성이죠. 통기타 한국 치면 그날 술은 공짜였고, 모르는 사람들도 다같이 박수치고 즐겼어요. 그 때의 낭만이 그립네요.



1999년 | 옥포 거리 대우자동차

옥포 거리에 대우자동차가 가득했어요. 그땐 시절 도크가 비어 회사가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잠시 대우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자동차를 팔러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 연도별로 보는 그 시절

코로나19, 세계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대내외 경영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숱한 위기와 성공을 반복해 겪었습니다. 우리가 '정상'에 있다고 자만하거나, '바닥'에 있다고 낙담할 이유가 없음을 DSME 역사를 보며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 1973 1981 터전 구축

옥포조선소는 1973년 착공 후 오일쇼크, 조선경기 불황, 자금부족으로 건설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1981년 종합준공식을 열어 힘찬 출범을 알렸습니다.



### 1973

옥포조선소 기공식

### 1980

황무지에 들어서는 도크와 공장

### 1981

1도크 골리앗크레인 설치 중  
(서론, 남문에서 보이는 커다란 크레인)

## 1982 1989 성장과 진통

80년대 초반 세계 경기 침체, 조선 불황 장기화로 수주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선박 가격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회사는 경쟁력 향상 활동과 해상구조물 수주에 적극 나섰고, 수주 물량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해 그 공백을 인력으로 메우기 급급해 지게 됩니다. 이에 기술 축적과 경영혁신으로 상황을 헤쳐 나갔습니다.

### 1983

연필로 설계 도면 그리던 시절



### 1985 DSME 기술의 요람 탄생



# 1990 2002

## 시련 극복과 도약

80년대 말 회사는 계속되는 적자와 부채 증가로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희망90운동'을 추진했습니다. 덕분에 1991년부터 꾸준히 흑자행진을 이어갑니다. 1997년 IMF가 터지면서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포함됐지만 경영구조 건설화에 나선 결과 워크아웃을 조기졸업했습니다.

이후에도 회사는 숏한 성공과 위기를 반복해 겪으며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맥을 이루는 것은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DSME라는 거대한 산맥을 만드는 여정 속에 있으며, 멈추지 않는 그 걸음이 태산을 더 우뚝 솟게 만들 것입니다.

◦ **1985** 말 그대로 '불꽃 튀는' 용접경진대회

◦ **1986** 조선소 최초 초대형 선수 단일 블록 탑재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또 해냈습니다.



◦ **1982**  
옥포아파트가 제일 높은 건물



◦ **1983**  
당대 핫플, 옥포극장은 문전성시.  
회사는 기숙사, 병원, 학교, 동호회 등  
복지후생 제도를 대거 확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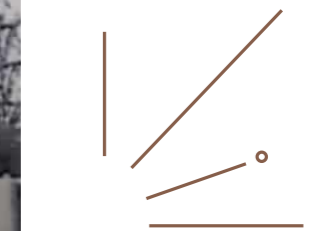
◦ **1985**  
부서 생일자 파티



◦ **1987**  
사장배 족구대회



◦ **1990**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직장살리기 표어



◦ **1990**  
파티션이 웬말. 얼굴 마주보고 일하던 시절



◦ **1991**  
하루의 시작은 어김없이  
체조와 함께



◦ **1995**  
"설 잘 보내고 오이소~" 귀성길 정겨운 풍경



◦ **1996**  
우린 ESG 얼리어답터



# 선박을 숨쉬게 하는 선박시운전



## 선박에 생명 불어넣는 창조자들

시운전은 배에 있는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물이나 전기, 기름을 넣어 시험해보는 일을 주로 해요. 사실 바다에서 배를 운항하는 일은 우리 업무의 10% 정도 밖에 안 돼요.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해 하나씩 생명을 불어넣는 일! 이것이 시운전의 주요 업무예요. 장비뿐 아니라 미세한 선박의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를 살리는 일도 한답니다.



**송평근** 선임 | 선박시운전부

아내와 몇 년을 함께 살았지만 “갔다 올게, 다녀 왔어” 말고는 일에 대해 깊이 이야기 해본 적이 없네요. 시운전이라고 하면 배 조종만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 기회를 삼아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 Step1

## 발전기 가동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쓰려면 전기가 필요하듯, 가장 먼저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를 살려야 해요. 부품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콘센트를 꽂으면 안 되는 것처럼 발전기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을 확인해봐야 하는데, 배에선 아직 전기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육상(도크)에 있는 전기를 배에 임시로 끌어다 테스트를 시작해요. 확인이 끝나면 선박의 심장인 발전기를 돌립니다.

배에 있는 모든 장비와 센서는 전기가 있어야 작동하기 때문에, 발전기를 살리는 것은 시운전의 가장 첫 단계입니다. 전기가 돌기 시작했으니, 이제 센서로 선박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IAS : Integrated Automation System)을 가동해요. 이 화면에서 선박의 상태를 확인하고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제 곧 배가 바다에 뜰 것이기 때문에 안쪽에 묶기 위한 계류 장치들도 기름을 채우고 전기를 연결해 점검합니다.



### Step2

## 엔진과 보일러 가동

배가 바다로 나오면 엔진 돌릴 준비를 해요. 엔진으로 연결되는 배관에 이물질이 없도록 기름을 넣어서 깨끗하게 세척해요. 그리고 보일러를 가동합니다. 일반 가정집과 달리 선박 보일러는 거주구역 난방기능은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대신 기름이 장비마다 원활히 돌 수 있도록 예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요. 연료유나 윤활유 온도가 낮으면 점도가 높아져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초대형원유운반선에는 원유를 싣고 내리기 위해서 엄청 큰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발전기 부하 시험

이번에는 발전기가 배에 있는 모든 장비를 살릴만큼 힘을 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단계예요. 아직 장비들을 모두 가동할 수 없어서 보조 장비를 선박 위에 올려서 테스트를 시작해요. 보조장비는 마치 다리미처럼 열을 만들어 발전기가 만드는 전기를 다 받아낼 수 있답니다.



## 엔진 가동

이제 깨끗이 씻어낸 엔진을 가동해볼 차례예요. 안벽에 배를 묶어둔 상태로 프로펠러를 돌려 추진력을 시험해봐요. 추진력이 워낙 강해서 배에 조그만한 터그보트\*들이 붙어서 반대로 배를 힘껏 당겨줘야해요. 배 조종석과 터그보트팀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당겨도 실제로 배가 앞으로 움직일 정도로 힘이 세요.



\*터그보트(에인선): 선박을 끌어 당기거나 밀어서 지정된 장소로 옮겨주는 소형 선박

## 평형수 시스템 점검

이번엔 시운전이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을 맡으며 선박을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 시스템을 점검할 차례예요. 평형수는 배에 물을 채워 배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물건을 싣거나 이동 중 배가 한쪽으로 기울면 침몰하겠죠? 중합설계부에서 계산해온 수치를 바탕으로, 시운전에선 평형수 탱크에 물을 채웠다 뺐다를 반복해요. 이 과정을 거쳐 원하는만큼 물을 주입했을 때 계산한만큼 배가 기울어지는지 확인하답니다. 이를 '중경사시험'이라고 불러요.



## 드디어 바다로!

이제 열심히 훈련을 마쳤으니 종합점검을 하러 떠나요! 마치 올림픽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실전 시험에 나가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근력운동, 식단관리, 모의훈련을 마쳤으니 이제 모든 선박 기능을 바다에서 직접 시험해 봐요. 보통 1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승선해요. 흔히 시운전하면 떠올리는 배 조종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외부 선장님을 모셔온답니다.

바다에 나가면 배가 설계된 속도를 낼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요. 좌우로 회전도 하면서 성능을 만족하는지 시승해보는거죠. 그리고 원유운반선은 실제로 바닷물을 가득 채워 화물을 실은 상태에서도 속도가 나오는지 점검을 해요. 이렇게 넣은 바닷물을 원유 펌프를 통해 다시 바다로 내뿜는데, 소방차가 물을 쓰는 것처럼 물줄기가 나가요. 그래서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해해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깨끗한 바닷물을 넣었다가 그대로 다시 내보내는 거니까 걱정 안하셔도 된답니다. 초대형원유운반선의 경우 30만 톤의 물을 넣었다 빼는데만 2박 3일이 걸려요.

그리고 야드 안에서 점검했던 개별 장비를 실제 운항조건에서 제대로 가동하는지 점검을 해요. 선주와 기능을 보증하는 또 다른 주체인 선급의 확인을 받으면 테스트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옵니다.



## 가스시운전

LNG선은 극저온의 가스를 싣고 내리는 기능이 다수 탑재돼 있어서 실제 LNG터미널에 가서 기능을 점검하는 일이 남아있어요. 통영이나 광양 가스공사에 가서 영하 163도의 극저온 LNG를 탱크에 가득 싣고, 해상에서 가스를 실은 상태로 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테스트를 해요. 보통 14박 15일 가까이 걸리는 긴 일정입니다.

## 정리정돈

고객에게 배를 넘겨주기 전에 테스트하며 썼던 장비들을 씻고 닦고 청소해주는 일이 남아있어요. 필터들은 꺼내서 새것처럼 씻어내고, 탱크도 세척에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배에 실어줘야 하는 선적품들을 제자리에 두고 나면 드디어 고객에게 배를 인도합니다.

# + 슬기로운 **공개** 야드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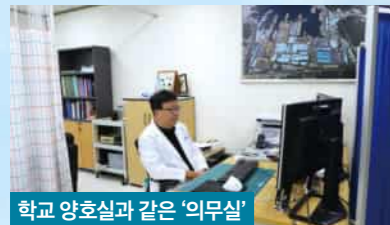
“우리 애가 회사에서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신랑이 현장에서 다칠까봐 걱정돼요”, “엄마가 다니는 회사 안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직원 가족들이 편집실로 종종 물어오는 질문입니다. 직원들이 야드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높이 솟은 가로수와 벽으로 가려져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소개합니다.

## 안전 좋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출근한 모습 그대로 다친 곳 하나 없이 퇴근하는 것'. 안전 좋아!



사고 예방을 위한 VR(가상현실) 안전교육



학교 양호실과 같은 '의무실'



빠끗한 곳이 있다면 치료해주는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내 소방서 2119



화재대처 훈련도 열심히!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돕는 HSE실천요원

##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지켜라! 회사는 DSME코로나19대응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춰 예방과 신속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역, 식당 칸 분리와 좌석 입력, 상황에 따른 목욕탕이나 헬스장 등의 운영 조정 등 다방면으로 활동합니다.



직원 신고와 문의를 받는 상황실 직원들



식사할 때는 칸막이를!



시운전 승선할 때 체온 체크는 필수



야드 곳곳을 살균하는 방역 특공대!

## 사내 규정 속도는 30km/h

옥포 야드 넓이는 450만㎡(150만평). 야드 안에서 이동할 때는 개인 자전거나 사내 셔틀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야드 안에는 많은 중장비가 다니므로 안전을 위해 차량은 30km/h 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장소에 따라 속도를 더 줄여야 할 때도 있어요. 과속 단속 카메라나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표지판도 곳곳에 있답니다.



5~10분 간격으로  
사내 곳곳을 누비는 셔틀버스



회사차량 주유는 여기서



30km/h 단속 중(코로나 전 촬영)

## 헬스장, 목욕탕, 매점... 어디를 갈까?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사내 곳곳에는 헬스장, 목욕탕, 샤워실, 휴게실, 매점, 제빙기 (여름에 얼음 제공) 등이 있습니다. 편의를 돕기 위한 출장소 형태의 은행, 무인 민원발급기, 현금입출금기(ATM), 자전거 수리방, 세탁소 등도 마련돼 있습니다.



매점에서 간식 고를 때 행복~



여러 은행이 한곳에 - 각종 증명서, 동사무소에 안 가도 해결



자전거 수리도 어디서나



사내 헬스장에서 키운 몸^^(코로나 전 촬영)

## 야드 안의 명소

회사 조경은 계절마다 멋진 풍경을 선사합니다. 96개 종류, 9만여 그루 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조경 가치만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하죠. 물론 작업장에서는 직원들이 철판을 자르고 용접해 붙이고 중장비를 바쁘게 움직이지만, 가끔 눈에 들어오는 야드 풍경은 마음에 잠시나마 '쉼'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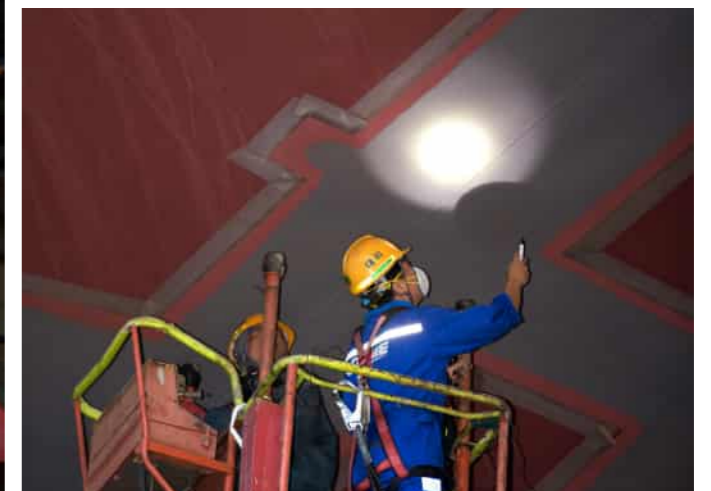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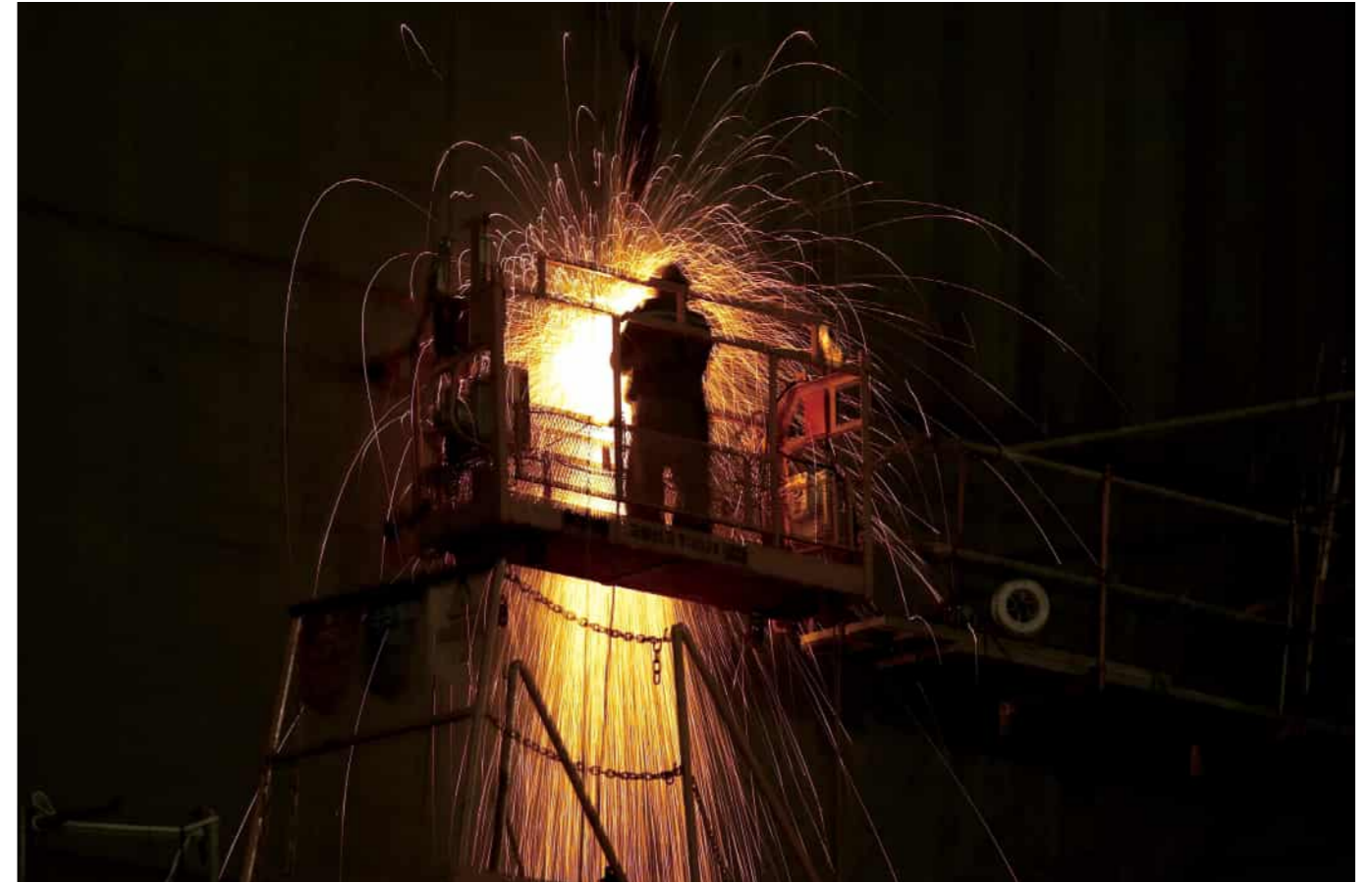
예전에는 연구소로 올라가는 당등산 뱃꽃길 아래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기도



가을로 물들어가는 야드



거제에 눈이 내리면 신뢰관 아래 물레방아는 꿈꿨 ~



# 폭풍우를 만나다

뒤로 5칸 III →

## 단체셀카



## LNG선 등장



LNG선에서 가스를 공급받았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저녁식사 준비 1회를 해야 합니다.

## 최고의 선원으로 선정

### 부부여행권

부부여행권을 받았어요.  
단 둘이 데이트를 ♥

## 선실에 입장



실컷 선실 구경을 하고  
주방에 갔더니 엉망이에요.  
게임이 끝난 후 설거지 한판 하기.

## 여객선 파티 초대



모두 앞에 서서 자신이 선택한  
노래 하나가 끝날 때까지  
노래 또는 춤을 춥니다.

## 컨테이너선 등장



게임이 끝난 후 모두에게 원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나씩 줘야 합니다.

# 월급날

1 모두에게  
만원씩 받기!



## 고정식 플랫폼 등장



이런! 원유를 퍼올리느라 더러워졌어요.  
게임이 끝난 뒤 집 청소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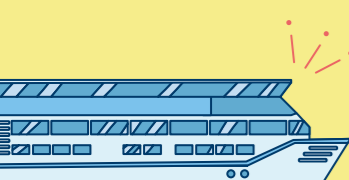
### 잠깐 상식!

하루 14만 배럴 원유를 생산하는  
고정식 플랫폼(마우메이라)은  
트럭 32대를 주유할 수 있어요.

### 잠깐 상식!

LNG선 1척 (약 17만m<sup>3</sup>)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에 소비하는  
천연가스 소비량(약 14만m<sup>3</sup>) 이상을 실어요.

## 여객선 등장



게임이 끝나면 나중에  
당첨자가 원하는 장소로  
꼭 놀러가야 합니다.

## 항수병에 걸리다



배를 너무 오래 타니 가족이 보고 싶어요.  
지금 "사랑한다" 3번 외치기!

### 잠깐 상식!

스마트 ship에는 최적 항로를 알려주는 네비게이션을 비롯,  
장비를 육상에서 모니터링 · 제어하는 첨단 시스템이 있어요.

### 잠깐 상식!

회사가 건조한 원유운반선 중에는  
해적 침입차단을 위한 강력한  
물대포 등이 있어 끔찍하지요.

## 스마트십 등장



가고 싶은 칸으로  
말을 옮기고 그 칸의  
미션을 수행하세요

## 선장이 되다



다른 참여자들에게 원하는 지시  
(심부름, 안마, 노래 등)를  
하나씩 내릴 수 있어요.

## 원유운반선 획득



원유운반선의 물대포 기능 장착.  
모두에게 딱밤 한 대씩 때립니다.

## 수주!



선박계약에 성공했습니다.  
모두에게 축하 뽀뽀 받기.

## 구축함 등장



방어능력이 올랐습니다.  
게임 중 언제든지 수행하기  
싫은 미션 한가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쇄빙 LNG선 탑승



"아이~ 추워!"  
북극 운항을 시작했어요.  
따뜻하게 서로 안아주세요.

## 무인도



다음에 1회 쉬기.  
단, 장기지량을 하면 바로 탈출 가능



### D루마블 놀이방법

- 1 주사위 준비
- 2 이름을 적은 작은 종이로 말 만들기
- 3 한 명씩 돌아가며 주사위를 굴리고,  
나온 숫자만큼 시작점에서 출발
- 4 걸린 칸에 적힌 미션 수행하기  
(2바퀴 이상은 돌아야 게임을 즐길 수 있다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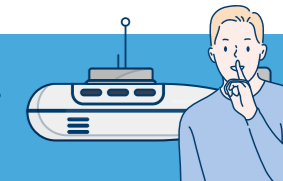
### D루마블 게임 인증샷 이벤트

놀이 인증샷을 이메일(prteam@dsme.co.kr)이나  
카카오톡(ID: dsmenews)으로 보내면 상품 증정!(1만원 문화상품권+수건)

잠수함의 최대 잠수기간은 약 3주이고,  
앞을 못봐도 음파로 탐지해 나갑니다.

잠깐 상식!  
아말 쇄빙 LNG선은 영하 57도의  
극한을 견딜 수 있습니다.

## 잠수함 당첨!



5분간 발언 금지  
(어길 시 다른 참여자들이 내건 벌칙 수행)

START  
출발



# 세상을 바꾸는

# ESG

요즘 신문이나 광고에서 많이 보이는 세 글자, ESG.  
 이름만 들으면 아는 기업들이 너도나도 한다고 홍보하는 ESG.  
 대체 정체가 뭐길래, 이토록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까요?

## 오래가는 기업, ESG에 주목하라!

ESG는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머리글자를 딴 말이에요.  
 알파벳 그대로 '이에스지'라고 읽습니다.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보다 **'얼마나 투명하고 옳은 방향으로 돈을 버는지'**가 중요해진 시대가 됐어요. 아젠 E, S, G 이 세 가지를 잘해야 기업이 오래 간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세계 경영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는 유수의 기업들이 ESG 경영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기도 해요.



Environment

기업이 얼마나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를 의미합니다.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탄소배출 제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생활 속 사례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한 무라벨(라벨프리) 상품 출시(이미지1), 재활용이 어려운 아이스팩 보냉제 대신 얼음물 사용,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장바구니 증정과 삼푸·세제 리필 자판기 설치(이미지2) 등이 있습니다.



Social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지역 사회와의 공생 뿐만 아니라, 직원·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안전·사생활 등을 보장하는 넓은 개념이죠.

1996년 나이키는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파키스탄 아이들이 14시간 손 바느질로 축구공을 만들고 1달러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이후 아동 노동 문제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사회책임 경영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미지3)  
 “여기 커피 공정무역 원두 쓰나요?” 커피 한 잔이 나에게 오기까지 노동 착취 등 조금의 부당 과정이 없기를 바라는 ‘착한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이미지4)  
 맛과 영양에는 문제 없지만 상품성이 없어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을 매입하거나 가공해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푸드 리퍼브)시키고, 농민과 상생하는 기업도 인기예요. (이미지5)



Governance

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구조가 투명한 지를 검증합니다. 법과 윤리를 잘 준수하는지,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등은 전문성이 있고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됐는지 등이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여성 이사가 2명 미만인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니레버’는 다양한 인종과 국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모범 사례로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기업 윤리와 원칙을 세세히 정하고 누구나 투명하게 보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해 호평을 받기도 했어요. (이미지6)  
 또 다른 예로, ‘러쉬’ 북미 본부는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우리 조직의 리더에는 흑인이 없었지만, 이젠 변화할 것”이라며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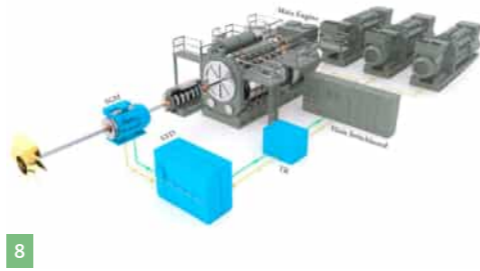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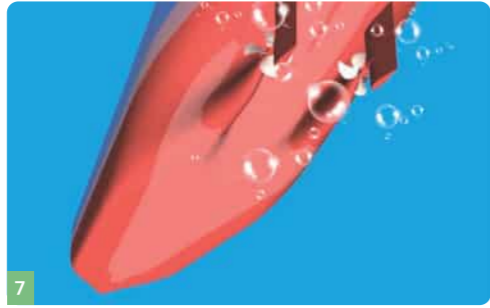


# DSME도 ESG 하고 있나?

DSME는 ESG추진단을 꾸려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 중 가장 활발한 환경 분야 활동을 보자면 크게 제품과 아드의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품 분야부터 설명하자면, 회사는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명실상부 '넘버 원'입니다.

## 방법 1 연료를 적게 써서 오염 배출 줄이기 (에너지 저감장치 개발)

- 공기유탄시스템 : 배가 수면 아래로 공기를 내뿜어 저항을 줄이고 연료를 적게 써요.(이미지7)
- 축발전기모터시스템 : 엔진 축이 돌아가는 힘으로 기름 대신 전기를 만들어요. (이미지8)



## 방법 2 기름보다 오염 배출이 적은 연료 사용하기 (친환경적인 연료 사용)

이중연료시스템 : 디젤, 벙커C유보다 탄소배출이 적은 LNG, LPG를 연료로 함께 사용합니다. 30~40%까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 방법 3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연료 사용하기

암모니아, 수소, 연료전지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려면 연료탱크가 기존보다 3~4배 커져야 하고, 독성과 부식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보다 친환경적인 조선소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장 공장의 유해물질(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도장 공장'을 목표로, 2018년부터 5년에 걸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장에 오염물질 저감 시설을 설치했고, 2022년이 되면 사내 모든 도장 시설이 쾌적하게 탈바꿈 한답니다.

10월에는 전기 화물차를 도입해 연료 전환의 첫 걸음을 뒀습니다. (이미지9)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시대에는 지구를 앞장서서 지키고,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투명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 그리고 기꺼이 그 방향에 동참해 주는 기업. 그것이 곧 ESG 경영이 아닐까요?



드라이브 스루

# 연초엔 '드라이브스루' 여행 어때요?

거제에서 2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여행코스를 소개합니다.



## 산청 정취암

기암절벽과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풍경이 한 폭의 그림.

소요시간  
1시간 20분

주소  
산청군 신등면 둔철산로 675-87



## 📍 함양 지안재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 지리산 전체 능선이 한눈에 보이고 등산로, 바이크 코스로 유명. 날씨 좋은 날, 별빛이 쏟아질 때 차량 궤적을 담은 사진작가들의 명소.

### 소요시간

1시간 45분

### 주소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함양읍 구룡리



## 📍 하동 동정호

박경리 소설 '토지' 무대. 산중호수로 하동댐의 상류에는 청학계곡, 목계계곡이 있어 봄꽃, 가을 단풍, 겨울 설경이 지리산과 절경을 이룬다. 하동댐 잔디밭, 비 오는 날 구름 속 목계계곡과 안개 자욱한 하동호에서 삶의 미학을 느낄 수 있다.

### 소요시간

1시간

### 주소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 📍 사천 비토섬

눈부시게 푸른 물결과 끝없이 펼쳐진 갯벌,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인 창선·삼천포 대교를 조망할 수 있다.

### 소요시간

1시간 20분

### 주소

사천시 용현면 종포마을회관~ 사천대교~비토교~월등도



## 📍 밀양 위양지

봄에는 이팝나무, 겨울에는 나뭇잎 떨어진 나무들이 멋지다. 위양지는 가볍게 걷기 좋으며 밤엔 달빛 은은한 풍경 속에서 힐링 가능.

### 소요시간

1시간 45분

### 주소

밀양시 부북면 위양2길



## 📍 고성 동해 해안길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 동진교를 지나면 알싸한 바다 향기와 리아스식 해안 경관이 조화를 이룬다.

### 소요시간

1시간

### 주소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창포리



## 📍 통영 평인 노을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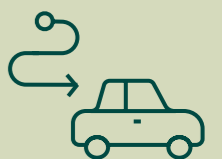
점점이 떠 있는 섬들, 노을 전망대에서 섬 사이로 떨어지는 해가 아름답다. 넓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나들이에 안성맞춤. 인생 샷을 찍을 수 있는 카페가 즐비해 있다.

### 소요시간

40분

### 주소

경남 통영 평인 일주로 132. 평정동 해안~북신만 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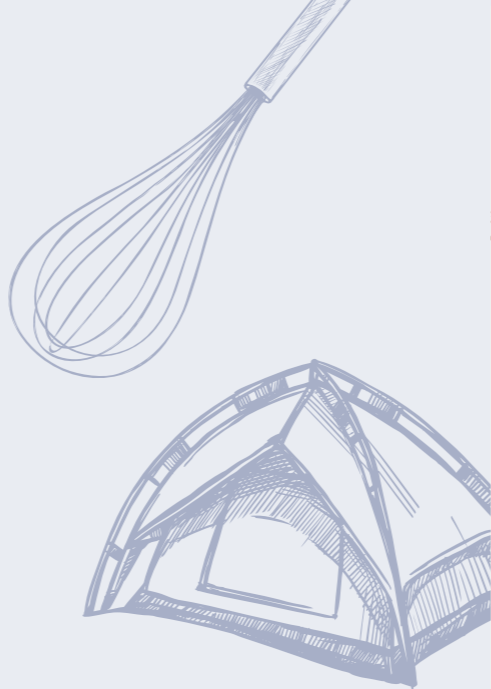
혼자 놀기,  
이렇게

# 나는야 요리하는 캠린이

**박성범** 책임엔지니어 | 선박기장배관설계부

원래 캠핑을 좋아했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근처에 좋은 캠핑장들이 많아 점점 그 매력에 푹 빠지고 있어요. 요새는 정말 필요한 짐만 들고 가는 백패킹을 시작했습니다.

캠핑을 안 갈 때는 주로 집에서 잘 차린 한 끼를 먹으려고 노력해요. 플레이팅을 근사하게 해서 먹으면 대접 받는 느낌이 듭니다. 항공 샷으로 갤러리에 담아두는 건 기본! 요즘엔 나이프, 팬 등 조리 도구도 욕심내기 시작했어요.



## 근교 캠핑 핫플 추천



- 매물도 통영**  
폐교 운동장을 캠핑장으로. 일출, 일몰을 모두 볼 수 있다. 거제에서는 저구항에서 배로 이동. 선착장에서 폐교까지 걸어가야 한다. 백패커 성지 중 하나.
- 소쿠리섬 진해**  
무인도에서 사슴과 함께 캠핑. 진해 명동선착장에서 배로 이동. 선착장 주변 진해해양공원에서 짙 라인 등 액티비티도 가능.
- 우도 통영**  
3,000원에 프라이빗한 캠핑! 선착장에서 스팟까지 걸어야 해 백패커에게 적합. 물이 맑아 스노클링 추천!

## 초간단 있어 보이는 레시피

집에서 제주도 느낌 내기  
**‘고기국수’**

김장철에 식재료용으로 훌륭한 고기국수. 소면이 아닌 중면을 쓰는 것이 포인트! 제주 느낌 아니까~

**재료** 시판용 사골육수 한 팩, 국수장국 (간장 대체 가능), 수육(또는 시판 훈제 돼지고기), 파, 중면

- ① 사골육수에 국수장국 2큰술을 넣고 기호에 따라 물을 넣어 간을 맞춘다.
- ② 면을 삶아 그릇에 넣고 준비된 육수를 담는다.
- ③ 고명으로 수육(또는 훈제 돼지고기)를 올리고 파를 송송 썰어 올린다.

케첩만 있으면 딱딱,  
**‘원팬 나폴리탄 파스타’**

일본식 토마토 파스타. 팬 하나로 남은 야채를 처리(?)하는 간편함 때문에 캠핑장에서 자주 해먹는 요리예요.

**재료** 스파게티면, 케첩, 양파, 마늘, 파마산 치즈, 올리브오일, 소시지 (채소 추가 가능)

- ① 준비된 재료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 ②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물이 90%정도 줄 때까지 익힌다.
- ③ 물이 거의 줄아들면 올리브오일과 준비된 야채를 넣고 볶다가 케첩을 넣는다.
- ④ 완성되면 준비된 그릇에 담고 파마산치즈가루를 위에 뿌린다.



# 도전, 나도 바리스타!

**제현준** 사원 | 설비건설부

평소에 카페를 가면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막연하게 한번쯤 나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사내신문 해오름터 강의 안내를 보고, ‘바리스타 2급 자격과정’에 홀린듯 신청 버튼을 눌렀어요. 알면 알수록 묘한 매력이 있는 커피. 여기에 빠져 저는 어느덧 1급까지 손에 쥐었네요.



## 바리스타가 되려면?

주관 기관마다 다르지만, 주로 2급 과정은 전반적인 커피 상식, 에스프레소 추출과 라떼아트 등의 기본기를 다져요. 1급 과정은 2급 자격을 가진 사람만 응시할 수 있고, 원두의 향미와 맛 감별은 물론, 3단 툴립 등 좀 더 고급진 라떼아트 스킬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준비물은 커피에 대한 마음가짐이겠지요? 커피를 사랑하는 당신이라면 이미 자격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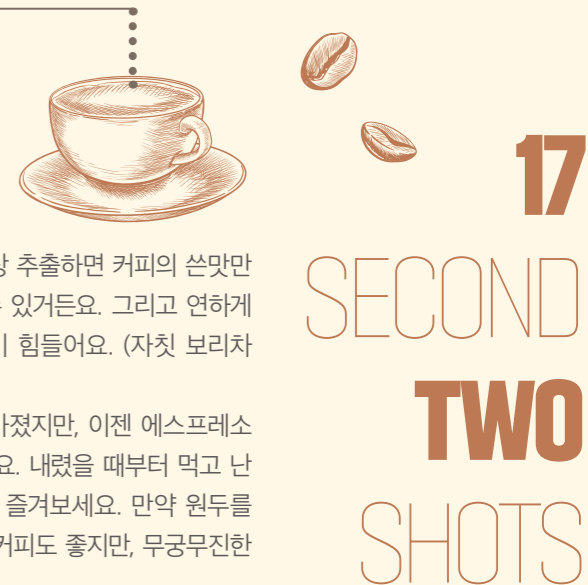


## 맛있는 커피? ‘17초 투샷’을 기억하세요



샷 추출은 보통 17초에서 25초 사이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추출하면 커피의 쓴맛만 남게 돼요. 좋은 커피는 신맛, 단맛, 쓴맛을 골고루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하게 드신다고 원샷만 넣을 경우에는 커피의 온전한 맛을 느끼기 힘들어요. (자칫 보리차 맛이 날 수도...)

저도 커피를 배우기 전에는 인테리어나 멋진 풍경 위주로 관심을 가졌지만, 이젠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을 눈 여겨 보고, 우유를 스티밍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내렸을 때부터 먹고 난 후에 입 안에 맴도는 풍미까지, 커피 한 잔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즐겨보세요. 만약 원두를 선택할 수 있다면 원두의 향부터 맡아보면 더 좋겠지요? 간편하게 즐기기에 믹스커피도 좋지만, 무궁무진한 커피의 세계를 알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을 거예요.



코로나로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된 가족에게  
사우들이 전하는 진심



# “어깨 무거운 우리 아버지, 이젠 좋은 것만 즐거요.”

한만우 기선 | 장비운영부



존경하는 아버지. 참으로 오랜만에 편지를 올립니다. 군대 훈련소 이후 편지를 쓴 적이 없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살갑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되네요. 군대 다녀오면 ‘효도해야지’ 했는데, 10년 넘게 효도는커녕 철없이 사고만 치고 부모님 속만 더 힘들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뵈러 고향인 함안 시골 동네에 다다를 때면 “1km도 넘게 뻗은 가로수 울창한 도로가 예전엔 자갈밭이었다”고 말씀하셨죠. 17살 어린 나이에 장남이란 이유로 어린 동생들을 위해 땀 한 톨 없이 상경했던, 지금의 저보다 더 어린 그때의 아버지.

“호텔 중식당에서 설거지에 허드렛일하다가 할머니가 보고 싶은 날이면 한겨울에도 버스에 몸을 실었지. 그 먼 길 지나 그리운 고향길 그 자갈밭을 한참을 걸었어. 그런 밤이면 할머니가 말없이 따뜻한 아랫목에 뉘어 나를 안고 재워 주셨지.”

어릴 적 그 얘기를 들으면 ‘어렸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곤 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제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아버지의 자리에 서 보니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깨에 지고 있던 ‘가장’이라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지만,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몇 달 전, 아버지가 오랫동안 타셨던 겔로퍼가 기억에 남아, 같은 차종을 구입했습니다. 비록 같은 차는 아니지만 어릴 적 제가 앉았던 자리에 제 아들이, 아버지가 앉았던 운전석에는 제가 앉았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앉아 있는 어린 아들을 보니, ‘아, 아버지도 나처럼 이 농한테 좋은 것만 다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하는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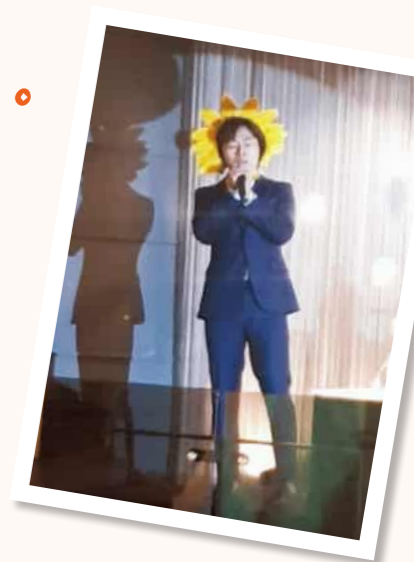
중국집, 한 달에 겨우 한번 쉬는 그 하루마저도 봉사활동 가서 요리하시던 아버지. 그런 당신을 보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웠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바라는 건, 재산도 집도 아닙니다. 이젠 너무 애쓰며 힘들게 살지 마시고 당신들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0년 된 기름때 묻은 옷도 버릴 줄 아셨으면, 자식 위해 한푼 두푼 아끼는 일도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좋은 것만 드시고, 좋은 곳만 가고, 그렇게 아버지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효도하려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지금에 와서 너무 와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후회 없이 표현하고 노력하는 큰아들이 될게요. 누구보다 존경하고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 저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큰아들 만우 올림**

# 나는 누나의 해바라기

양철호 기선 | 선박의장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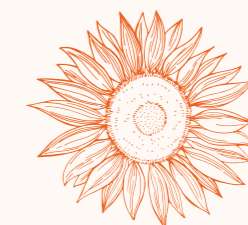
하나 밖에 없는 나의 누나. 어릴 땐 자주 다툰 기억이 잔뜩인데, 누나가 결혼하고 난 뒤론 자주 보질 못하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만나면 웃고 떠들기 바쁜 추억이 쌓이고 있어. 나 한창 철 없음을 적 누나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우리 집에 많이 보태줬잖아. 누나 쓰기도 모자랐을텐데 내가 놀러 나갈 때면 쫓아나와서 매번 그렇게 용돈 있냐며 지갑에 몇 푼 안되는 돈 내어주려고 했던 우리 누나.

사실 누나보다 내 주머니가 더 두둑했던거 알아? 난 보통 나가면 모자란 적 없이 썼거든. 그래서 차마 항상 아끼고 쓰지 않았던 누나가 준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누나의 마음이 참 애뜻하고 고마워. 부모님 다 떠나면 남는 건 누나랑 너 뿐이라는 엄마의 말이 떠올라. 아직 조금 서툴고 쑥스럽지만 누나에게 앞으로 더 잘할게.

예전부터 누나가 결혼할 때 축가를 내가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난 그래서 누나의 결혼식이 잊히질 않아. 누나가 좋아하는 해바라기를 떠올리며 준비했던 작은 이벤트. 해바라기 탈을 쓰고 누나가 가장 좋아했던 곡을 불렀던 날. 어릴 적 싸우다 울린 적은 있지만 감동으로 울리긴 처음이었던 것 같아.

나에게 행복이란 남에게 웃음을 주는 것인데, 그 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어서, 내겐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그래서 그런지 그 날을 준비했던 영상과, 그날의 기록을 돌려보곤 해. 최고로 행복했던 날이니까. 누나도 앞으로도 결혼 생활 쪽 행복해.

동생 철호가



# 지도 동부면+남부면



- ★ 포토 스팟
- ★ 직원 추천 맛집
- ★ 낚시 포인트

우리 가족 여가시간에 동네 한바퀴 걸어도 보고 숨은그림 찾기도 해보세요. 이번호 숨은그림 정답을 촬영해 보내준 사우 20명은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1만원권)을 드립니다.

틀린그림: 연필, 불가사리, 샌드위치, 핫도그, 아이스크림, 꽃게, 풍선

### 참여방법

카카오톡 ID dsmenews로 숨은그림 정답 사진과 사우 성명, 소속, 연락처를 함께 송부